

#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의 매개효과

##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e and Care

노 미 화(Miwha Noh)\*, 허 미 정(MiJeong Heo), 최 연 실(Youn Shil Choi)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how parenting attitudes, ego resilience, and care affects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so as to provide a necessary basic guideline needed to seek various intervention methods. To achieve this end, the study referred to the 2014 Annual Report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By using both SPSS 19.0 and AMOS 19.0, the study yield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study showed that parenting attitudes, ego resilience, care, and school adjustment all have a positive correlation. Second, by conducting path analysis in order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and care with regard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school adjustment, the direct influence that parenting attitudes had on school adaptation was shown to be relevant. Third, adolescents' ego resilience and care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school adaptation. Therefore, together with intervention in actual school settings, assessing various factors that would aid the recovery of adolescents' characters and pursuing a positive reinforcement of character by finding protective factors would enable this study to be used as a basic guideline that would prevent adolescents' maladjustment to school and social deviance as well as aid the growth of their characters.

▲주제어(Key words) : 청소년(adolescent), 부모양육태도(parenting attitudes), 자아탄력성(ego resilience), 배려심(care), 학교 적응(school adjustment)

### I. 서론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6만568명(0.9%)으로 매년 1% 안팎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한다면, 학교 이탈 청소년 문제에 학교와 교육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

으며, 청소년의 학교 이탈 현상을 '청소년의 실패'가 아닌 '교육의 실패'로 보아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W. J. Tae, 2014.6.19). 청소년의 학교 이탈 사유는 학습 부진, 학업 기피와 같은 학업수행 관련 영역과 친구들과의 관계 악화, 집단따돌림, 학교폭력과 같은 또래 관계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에게 진로와 학교성적은 주된 고민거리로 학업

\* 이 논문은 2014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Miwha-Noh,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1322 Jungbalsandong, Ilsandonggu, Gyeonggi-do 410-830, Korea, Tel: +82-031-913-2767, E-mail: miwha6708@naver.com

및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른 스트레스에 비해 성별에 상관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E. J. Jung, 2000). 청소년의 고민 중 55.3%는 공부와 관련된 것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있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청소년들은 학교를 쉬고 싶거나,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 또한 2014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 67.9%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였으며,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 68.9%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후 학생들은 극심한 심리적인 고통은 물론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생각하거나 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은 극단적 개인주의, 타인에 대한 무관심, 배려의 부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중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무단결석, 가출, 학교중퇴 등으로 이어지고, 비행과 폭력 등의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S. J. Kim, C. J. Lee, & B. S. Choi, 2004; J. Park & J-W. Moon, 2006).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집에서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등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가출, 비행으로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 입소하는 부적응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Y. H. Kim, B. Y. Choe, & I. H. Lee, 2013). 더불어 성인기 이후 사회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 S. Masten & J. D. Coatsworth, 1998; J. M. Richman et al., 2004, as cited in J. Kim, M-S. Ha, & B-H. Kim, 2011).

청소년에게 학교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주된 생활의 장으로 가정과 더불어 중요한 공간이다. 학교는 학업 성취와 같은 지적 영역 외에 사회적 학습의 장이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이다(O. B. Chung, 2004). 더불어 부모로부터 독립, 학업수행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처, 원만한 친구관계 유지 등을 통한 자아정체감 형성과 같은 청소년기 발달단계의 과업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에게 학교라는 공간은 다양한 대인관계와 삶의 경험을 통해 적응과 부적응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해 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적응은 학교환경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를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다(W. J. Lee & Y. H. Kim, 2012).

따라서 학업수행과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 규범의 준수 등과 같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문제의 예방적, 치료적 의의를 갖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학교적응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크게 학생 개인 특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와 학생과 관련된 환경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로 양분되어 왔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면, 청소년들의 가정환경 특성(G. M. Baek, 2008), 개인적 특성(J. E. Choi & Y. J. Shin, 2003), 학교환경 특성(H-J. Baek, 2007; E. J. Jo, 2008; M. H. Lee, 2007; E. S. Moon, 2005)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 수행을 위한 자원의 의미를 가진 사회적 지지체계(K. Y. Lee, S. Y. Choi, S. H. Jang, & S. C. Shin, 2010)를 포함하는 사회환경적 영역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가정환경 특성에는 가족관계, 양육방식과 더불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구성 및 거주지역 그리고 양육자의 인구학적 특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가족의 구조적 특성보다는 기능적 특성이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기능적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의 양육신념과 이에 따른 양육행동(M. Bornstein & L. Cote, 2004; K. Rubin & O. Chung, 2006, as cited in S. Park & C. Yoon, 2013) 혹은 양육태도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주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M. Y. Huh, 2004), 초기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자녀에 영향을 주어 이후의 성격, 정서, 자아개념, 가치관 및 행동능력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또래 집단의 영향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자율적이고 민주적일 때 자녀는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지만, 방임적이거나 적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 Kwak, 2005; Y. J. Kwon & Y. H. Kim, 2011). 그러나 부모가 보고하는 양육행동보다는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청소년의 발달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도 한다(H. S. Lee, 2003).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중한 학업스트레스와 또래와의 관계 등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적응능력이 필요하고, 건강하고 탄력적인 자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요구된다(Y.

H. Kim & G-J. Seong, 2014). 이러한 학교 적응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개인 내적인 특성인 자아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학교 적응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도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Y. M. Kim & Y. S. Lim, 2013). 개인적인 특성 연구 중 자아탄력성은 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학교적응도 잘하며 만족도 높다(J. E. Goo, 2000; O. S. Kim, Y. J. Oh, & M. G. Choi, 2005; Y. S. Lee, 2004). 또한 학업에 대한 지적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하여 집이나 학교에서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다(Y. H. Lee, 2008).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낙관적이고 생산적이며 자율적인 활동력을 보여주고,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이 있으며, 능숙한 자기 표현력을 보여주기도 한다(J. H. Kwon, 2006).

또한, 학교적응에서 청소년의 개인적, 가족적 요인 외에 학교와 사회를 포함하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 또한 중요한 변수이다. 청소년기는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부모, 교사, 친구 등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사랑, 보호, 수용 등의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게 되며, 이들 간의 관계의 질이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지지란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인 행위 또는 태도로서, 개인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의도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L. J. Fiedlander, G. L. Reid, N. Shupak, & R. Cribbie, 2007, as cited in S. Yune, J. Ju, & E. Lee, 2013). 사회적 지지원인 부모, 교사, 또래들 중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등학교의 학교생활이 학급단위로 운영되고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급 안에서 보내므로, 또래와의 관계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최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성의 덕목이자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주목받는 것이 배려심이다. 청소년기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형성·발달하는 시기이며 또래집단에 의해 정의와 배려간의 갈등적 상황을 빈번히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M. Y. Chung & O. B. Chung, 2001). 이 시기에는 타인의 감정을 읽고 함께 느끼는 감정이입적 공감의 능력과 타인의 입장과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역할채택 능력들을 기르는 일이 특히 더 필요하다(J. M. Lim, 2002). 하지만, 근래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정서가 메마르고 자기중심적이며 서로에 대해 무관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청소년들이 길러지고 인간관계에서는 '배려의 결여', '배려의 빈곤'이 나타

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Y. K. Chung, 2000).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물론 방관자들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갈등상황에서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청소년들은 또래관계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 종종 처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달리 추상적 추론과 복잡한 상황에서의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이고, 사회적 조망수용(social perspective-taking)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고 타인을 돕거나 배려하기 등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들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친사회적 행동은 또래집단에 수용될 가능성을 높이고 타인에 대한 수용과 관계 증진에도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여 학교적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이미 학교를 배려의 공동체로 보고 아동들의 친사회적 행동발달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교실을 하나의 배려공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협동학습,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실과 학교 그리고 가정환경 속에서의 체계적인 변화를 추구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M. J. Yang, E. Y. Kim, & S. H. Lee, 2008). 청소년들은 친구의 친사회적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모방 학습하며,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인들과 나누고 돕고 공감하는 것을 배우게 되므로 타인에 대한 이해의 자세를 갖추고 배려심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일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요컨대, 청소년의 학교적응이란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또래와 교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책임인 학업과 학교활동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배려심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또래들과 사소한 갈등이나 충돌로 학교폭력이나 학교부적응, 그리고 중도탈락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과 인성을 강조하는 학교분위기 또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연구들을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배려심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적응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개인, 가족, 사회환경적 요인들 각각에 대해 개별적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청

소년들이 문제환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이나 배려심과 같은 내면의 힘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에 대한 능동적이고 교육주체자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한 점들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배려심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과정을 탐색하여,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현장과 학교상담에서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배려심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둘째,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셋째,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배려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학교적응의 개념

청소년들이 가정과 더불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학교는 학습의 장인 동시에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M. Y. Chung & O. B. Chung, 2001). 따라서 학교적응은 학업성취와 같은 좁은 의미의 교육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발달과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학교외의 조직에서 적응하는 능력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Y-R. Cho, 2006). 따라서 학교 내에서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때 학업성적은 물론 가치관 확립이나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W. J. Lee & Y. H. Kim, 2012).

학교적응에 대한 개념은 학업성취(Y. Kim, 2002)라는 영역으로 국한시켜 보기도 하지만 학교적응을 '학교 환경에 대한 지각과 감정으로 특히 학교 환경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편하게 느끼고 성공하게 되는 정도'(G. W. Ladd, B. J. Kochenderfer, & C. D. Coleman, 1997, as cited in T. S. Jung, 2011)로, '학생 개개인이 모든 학교 환경으로부터 유발되는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과 성장을 위해 자신과 학교 환경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능력'(S. J. Sung, 2010)이라고 확장시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교적응을 '학생 개개인이 학교 환경 내에서 유발되는 문제상황에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욕구와 성장을 위해 가족, 학교, 사회환경을 균형 있게 이루어나가는 상호작용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이 또래와 교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맞추어가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 2. 학교적응 영향요인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개인적인 요인, 가정환경 요인, 그리고 사회환경 요인으로 나누어져 진행되어 왔다. 이 세 가지 요인 중,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환경 요인인 부모양육태도가 학업 관련 문제나 학교생활적응(S. H. Kang, 2010)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H. Y. Kim, 2007)와 부모-자녀관계(J. E. Choi & Y. J. Shin, 2003)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일수록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자율적이고 민주적일 때 자녀는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 반면, 부모양육태도가 방임적이거나 적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 Kwak, 2005; Y. J. Kwon & Y. H. Kim, 2011). 또한 부모의 지도감독수준이 높을수록(J-H. Kim & L-J. Chung, 2010), 부모의 격려나 의사존중과 같은 긍정적 관여 수준이 높을수록(S. H. Lee & H. Choi, 2007), 청소년의 학교적응 정도는 높게 나타난다.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업적 대처, 관여, 자기조절, 지각된 통제 등의 측면에서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학교적응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학교활동 및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이 관심이 지닌 영향력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할 경우에도 여전히 유지된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아지더라도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낮아지지 않는다(B. N.

Kim, 2010).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인으로 사료된다.

개인적 요인에는 자아개념(Y. R. Kim & N. J. Huh, 2003; Y. R. Kim & T. E. Kim, 2001; S-G. Oh, 2006), 자아존중감(M. R. Han, 1997), 자아탄력성(C. S. Kang, 2008), 자기효능감(S. I. Gyeong, 2006; Y. J. Lee, 2007)이 주요요인으로 자아개념이 긍정적이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동기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쳐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은 변화의 속도가 급격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적 특성으로서 자아탄력성을 규정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자아탄력성(resilience)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심각한 삶의 도전에 직면하고서도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욱 풍부해지는 인간의 능력(Dictionary of Psychology, 2014)으로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이 학교적응도 잘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선행연구들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적응도 잘하며(J. E. Goo, 2000; O. S. Kim, Y. J. Oh, & M. G. Choi, 2005; Y. S. Lee, 2004), 학업에 대한 지적 성취도도 높고,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집이나 학교에서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으며(Y. H. Lee, 2008), 대인관계 능력에서도 우수하고, 부정적인 사건이나 심리적 어려움에서도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낙관적이고 생산적이며 자율적인 활동력을 보여주고,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이 있으며, 능숙한 자기 표현력을 보여준다(J. H. Kwon, 2006).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통제수준이 높고 학업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여 학교생활을 잘하며(Y-J. Hwang & K-K. Kim, 2014) 다양한 문제해결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것(S. J. Park & H. W. Shim, 2012)으로 보여진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타인은 부모, 교사, 또래이다. 이 중 특히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수준을 높이며,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는 아동 및 청소년의 높은 자아탄력성과 관계가 있다.

한편, 배려심의 사전적 의미는 ‘...을 도와주거나 보살피려고 마음을 쓰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tandard Korean Dictionary, 2008). 배려심에는 자신이 아닌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고 타인의 관점을 알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이타심’, ‘친절’, ‘존중’, ‘이해’, ‘겸손’, ‘희생’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남의 처지에 대해 단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려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남을 배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즉, 참된 배려란 걱정, 우려, 염려가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비로소 실현되었다고 한다(M. Mayeroff, 1971, as cited in B. S. Lee, 2002). 더 나아가, 배려적 사고란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돌보려는 성향을 지닌 사고로서 순간적인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사고이다. 다시 말해 배려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사고가 배려적 사고(M. Lipman, 2003)라고 할 수 있다.

배려심은 도덕성을 이루는 주요 덕목의 하나로서(C. Gilligan, 1993), 주로 성(gender), 출생순위, 부모학력 및 경제수준, 부모양육태도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성(gender)과 관련한 한 국내연구(O. B. Chung & K. H. Kwag, 2003)에서는 여성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이 남성의 도덕성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배려심에는 성(gender)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유로서는 남아와 여아가 어머니인 양육자에 의해 부모와의 인간관계를 상이하게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배려심이 높다는 결과들(O. B. Chung & K. H. Kwag, 2003; I. J. Goh, 2004; N. H. Lee, 1997)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몇몇 연구들에서 나타난 배려심에서의 성(gender)에 따른 차이는 Gilligan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성별의 차이라기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에서 보다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I. SÖchting, E. E. Skoe, & J. E. Marcia, 1994, as cited in M. Y. Chung & O. Y. Chung, 2001)도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유의하다는 것(N. H. Lee, 1997)과 유의하지 않다는 것(O. B. Chung & K. H. Kwag, 2003)과 같은 엇갈린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배려심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가정환경과 연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자란 아동은 도덕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도덕성의 주요 덕목 중의 하나인 배려성이 부모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다(S-Y. Kim, 2005). 또한, 가족기능이 아동의 동정적, 수용적, 사교적, 우호적인 대인관계 성향과 관련이 있으며, 가족기능이 배려성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K. R. Choi, 2004; Y. H. Sung & K. S. Shin, 2001).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 간 정서적 유대감과 결속력이 있고,

가족의 규칙과 역할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가족 속에 자란 아동은 다른 사람의 필요, 감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서 생각할 줄 알며, 이를 긍정적으로 잘 표현하는 등 배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T-Y. Ahn & Y-C. Roh, 2013)고 보고하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을 매개변인,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로서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을 가정하였고,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설정하여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4」의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적 조사하는 단기 종단패널 연구로서,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0년에 첫 조사를 시작하여 2013년도에 4회차 측정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중학교 1학년에서 2013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 2,108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 3. 연구도구

##### 1) 부모양육태도

본 연구에서의 부모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M. Y. Huh (2006)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검사 총 43문항을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4」의 부모양육태도 29문항 중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양육애정'과 '합리적 설명'에 해당되는 7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분포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문항의 신뢰도는 양육애정 Cronbach's  $\alpha = .81$ , 합리적 설명 Cronbach's  $\alpha = .78$ 로 나타났다.

##### 2)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의 자아탄력성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하는 능력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4」의 자아탄력성 13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척도는 J. Block & A. M. Krema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수정·보완한 J. E. Gwon(2003)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한 것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분포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다.

##### 3) 배려심

배려심은 타인을 도와주거나 보살피주려는 마음으로 H. W. Kwon(2004)의 민주시민의식 조사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4」의 설문지 문항 중 공동체의식에 해당되는 4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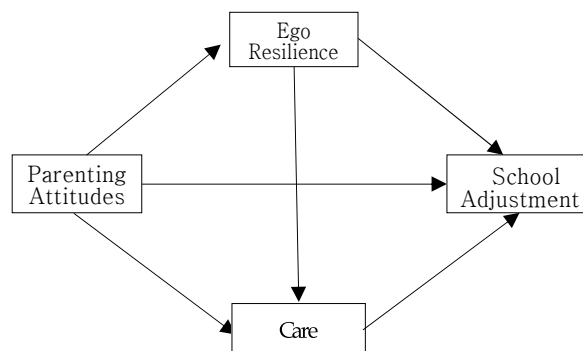


Figure 1. A Research Model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분포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려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다.

4)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정서 및 태도와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4」의 설문지 문항 중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학교생활에 해당되는 20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B. S. Min(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구성한 것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분포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문항의 신뢰도는 학습활동 Cronbach's  $\alpha = .76$ , 학교규칙 Cronbach's  $\alpha = .76$ , 교우관계 Cronbach's  $\alpha = .70$ , 교사관계 Cronbach's  $\alpha = .81$ 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19.0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부모양육태도 학교적응, 자아탄력성, 배려심 관련변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

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정상분포가 가정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으며,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9.0을 활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시도하였고,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간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075명(51%), 여학생이 1,033명(49%)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왜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Measure	Variables	M	SD	Skewness	Kurtosis
Parenting attitudes	Parenting affection	2.02	.55	.28	.47
	Rational explanation	2.24	.59	.29	.41
	Total	2.11	.51	.29	.62
Ego resilience	Total	2.19	.40	-.13	1.20
Care	Total	2.03	.51	.02	.73
School adjustment	Learning activities	2.17	.53	.30	.86
	School rules	2.06	.49	.03	.80
	Friendship	1.86	.42	.05	.63
	Teacher relationship	2.12	.58	.00	.10
	Total	3.72	.68	-.14	.86

Table 2. Correlations of Variables

	1	2	3	4	5	6	7	8
Parenting affection	1							
Rational explanation	.61**	1						
Ego resilience	.27**	.22**	1					
Care	.23**	.23**	.32**	1				
Learning activities	.33**	.26**	.28**	.36**	1			
School rules	.24**	.21**	.16**	.38**	.47**	1		
Friendship	.31**	.26**	.38**	.42**	.44**	.38**	1	
Teacher relationship	.31**	.26**	.31**	.36**	.41**	.38**	.47**	1

\*\*  $p < .01$

Table 3. Fit index of Model

	$\chi^2(p)$	$df$	CFI	TLI	NFI	RMSEA
Model	462.610 <sup>***</sup>	84	.92	.90	.91	.04

\*\*\*  $p < .001$

Table 4. Fit index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chi^2(p)$	$df$	CFI	TLI	NFI	RMSEA
Research model (Partial mediation)	462.6 <sup>***</sup>	84	.92	.91	.91	.04
Alternative model (Mediation)	511.8 <sup>***</sup>	85	.91	.89	.90	.05
Interval	49.2	1	10	4	10	2

\*\*\*  $p < .001$

와 침도, 그리고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1>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경로모형에서 사례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면 왜도 2, 침도 7을 넘지 않으면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E. J. Jo, 2008). 또한 Y. S. Seo(2010)는 구조방정식에서 각 변수들의 정상분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위해 왜도가 2보다 적고, 침도가 4보다 적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왜도에 있어서 모든 변수가 2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으며, 침도에 있어서도 모든 변수가 4이하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한편, 부모양육태도와 배려심, 자아탄력성, 학교적응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변인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16-.47$ ).

## 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측정변인들의 모든 요인 값은 유의미했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462.610$  ( $df = 84$ ,  $p < .001$ ), CFI = .923, TLI = .904, NFI = .908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델의 모형 적합도 판정 권장기준에 따르면, CFI, TLI, NFI는 모두 0.9이상과 RMSEA는 0.05 이하에서 수용한다. 본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RMSEA, CFI, TLI, NFI가 모두 권장수준을 충족하고 있어 적합한 모형으로 판정된다.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 3.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배려심, 학교적응 경로의 검증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적응에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검증하고, 부모양육태도에서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완전매개모형을 분석하여 두 모형의  $\chi^2$ 의 유의한 차이와 적합도를 비교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평가 결과, 모형의 적합도 개선지수인  $\chi^2$ 의 유의한 차이 값이 49.20로  $df = 1$  ( $p < .001$ )을 기준으로 10.80보다 크기 때문에 두 모델 간에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대안모형보다 더 나은 적합도를 보였기 때문에 두 모형 간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고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모형인 부분매개 모형을 <Figure 2>와 같이 제시하였다.

## 4.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배려심, 학교적응 변인간의 관계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배려심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하였다(<Table 5>, <Table 6> 참조). <Table 5>의 부분매개 모형의 검증 결과, 부분매개 모형의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부모의 양육방식이 긍정적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며( $\beta = .372$ ,  $p < .001$ ), 배려심이 증가하는 것( $\beta = .207$ ,  $p < .001$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높아질수록 배려심이 증가하고( $\beta = .285$ ,  $p < .001$ ) 학교적응이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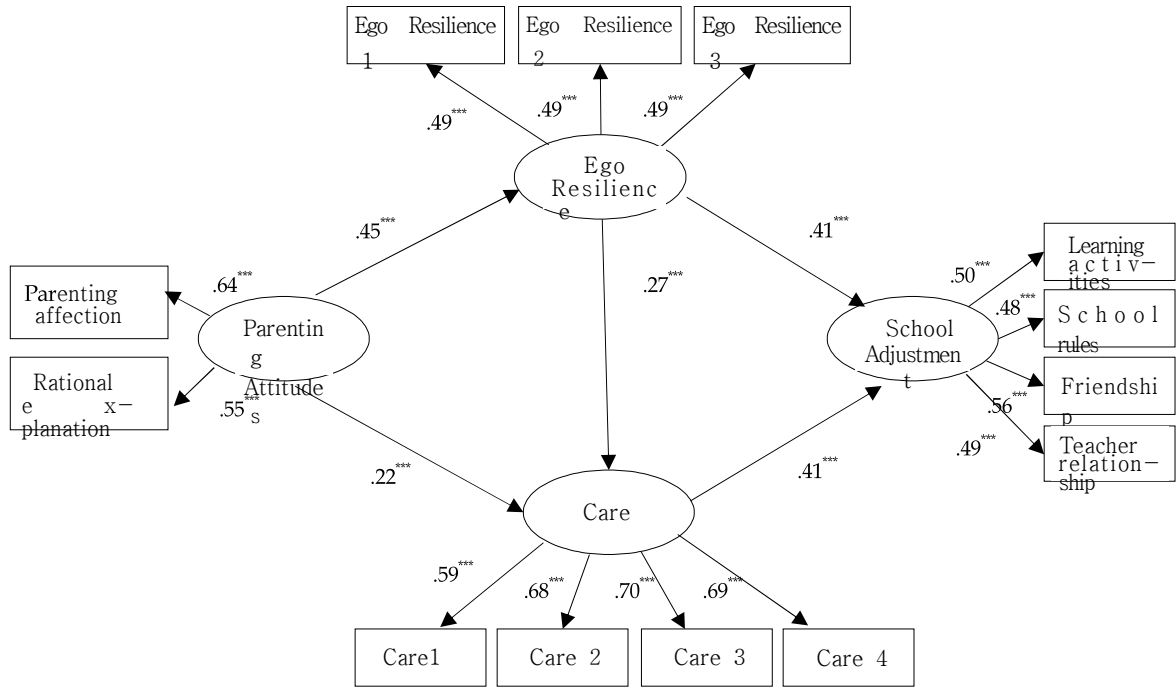


Figure 2. A Research model (Partial mediation)

Table 5. Path Coefficients of Partial Mediation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S.E	C.R	<i>p</i>
Parenting attitudes → Ego resilience	.25	.37	.03	7.88	***
Parenting attitudes → Care	.30	.21	.06	5.39	***
Ego resilience → Care	.62	.29	.09	6.77	***
Ego resilience → School adjustment	.23	.26	.04	5.69	***
Care → School adjustment	.15	.37	.02	9.62	***
Parenting attitudes → School adjustment	.17	.29	.03	6.56	***

\*\*\* *p* < .001

Table 6. Path Coefficients of Mediation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S.E	C.R	<i>p</i>
Parenting attitudes → Ego resilience	.28	.45	.03	8.80	***
Parenting attitudes → Care	.31	.22	.06	5.26	***
Ego resilience → Care	.58	.27	.10	5.88	***
Ego resilience → School adjustment	.37	.41	.04	8.34	***
Solicitude → School adjustment	.17	.41	.02	10.37	***

\*\*\* *p* < .001

아지는 것( $\beta = .262, p < .001$ )으로 나타나 부모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을 높임과 동시에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able 6>의 완전매개 모형의 검증 결과, 완전매개 모형의 부모양육태도→자아탄력성과 배려심, 자아탄력성→배려심→학교적응이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으며,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탄력성( $\beta = .450, p < .001$ )과 배려심( $\beta = .223, p < .001$ )이 높아지고,

학교적응( $\beta = .408, p < .001$ ), ( $\beta = .412, p < .001$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게 위해 비표준화 계수를 사용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산출하였으며, 이 때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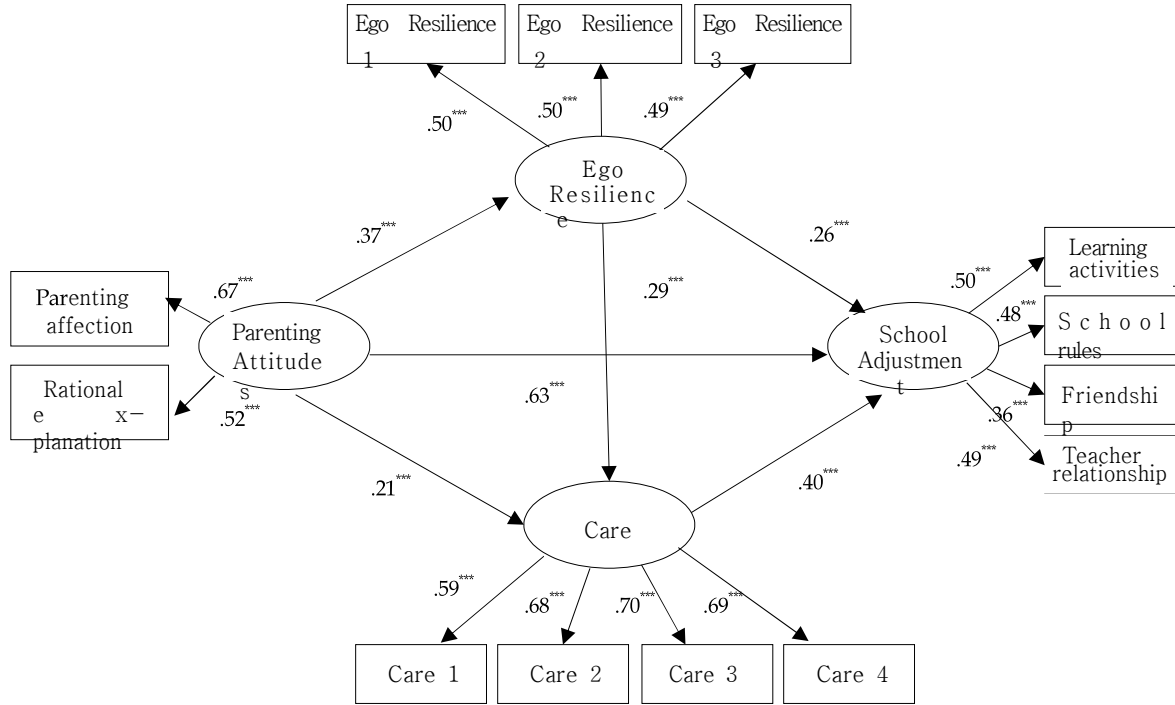


Figure 3. A Alternative model (Mediation)

Table 7.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Parenting attitudes → Ego resilience	.37	***	.37
Ego resilience → Care	.29	***	.29
Care → School adjustment	.37	***	.37
Parenting attitudes → Care	.21	.11	.31
Parenting attitudes → School adjustment	.29	.21	.50
Ego resilience → School adjustment	.26	.11	.37

\*\*\*  $p < .001$

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방식을 사용하였다. 간접효과는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표준오차를 사용해서 Z 검증을 실시할 경우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반면에 부트스트랩 방법은 R. M. Baron and D. A. Kenny (1986)의 Sobel 검증 방법보다 추정의 오차를 고려할 수 있고, 선행변인-매개변인-결과변인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Y. S. Seo, 2010). 매개모형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와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를 간접효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간접효과가 곧 매개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37)을 미치고 있고, 자아탄력성은 배려심(.29)에, 배려심은 학교적응(.37)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양육태도는 배려심(.21)과 학교적응(.29)

에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부적영향을 동시에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26)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간접효과 크기는 .21이고, 배려심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간접효과 크기는 .11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 크기는 .11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을 통해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은 배려심을 통해서 학교적응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접효과(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 따라서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은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배려심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배려심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와 직접, 간접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과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배려심, 학교적응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 즉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과 배려심, 학교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자율적이고 민주적일 때 자녀는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S. R. Kwak, 2005; Y. J. Kwon & Y. H. Kim, 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수준을 높이고, 배려심이 부모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다(S-Y. Kim, 2005)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사고와 태도에 따라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과 배려심, 학교적응이 향상될 수 있으며,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이 향상됨에 따라 학교적응을 높여 청소년들의 학교이탈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 수준에 따라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정도가 높거나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관심과 합리적인 양육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더 많은 학교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배려심 또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이 정서나 행동문제에 더 적응적이며, 자아탄력성이 낮아질수록 문제상황에 더 많이 노출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자아탄력성은 환경에 적응하는 긍정적인 성격자원으로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부정적 생활 사건들에 잘 대처함으로써 학교적응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배려심은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로서 관계지향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배려심과 같은 타인에 대한 공감적 태도나 용서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청소년기 또래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험 중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성장 후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의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적 태도와 더불어 학교장면에서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배려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학교적응과 향후 대인관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 하였고, 부모양육태도는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정한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은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적응 사이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기통제수준이 높고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문제 행동도 덜 보인다. 또, 배려심이 높은 청소년들은 또래관계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또래관계와 교사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지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과 배려성을 높이고, 높아진 자아탄력성과 배려성은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고 학교이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적응도 높다는 선행연구들(O. S. Kim, Y. J. Oh, & M. G. Choi, 2005)과 연관 지워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은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하고 좌절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는 심리내적인 자원으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배려심을 통해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배려심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고, 배려심은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매개하며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고 학교 내 문제를 감소시킴으로써 학교와 사회적응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 내적 보호요인임을 시사한다. N. Noddings(1992)는 학교는 무엇보다도 먼저 배려를 위한 장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며, 학교교육은 교과중심의 체계에서 배려를 중심으로 한 치유와 성장의 장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지식이나 기술만이 아니라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원숙해져 가는 공간으로,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인들과 나누고 돕고 공감하는 곳을 의미한다. 타인에 대한 이해의 자세를 갖추고 배려심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들을 증가시키는 일은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의 이탈을 막고,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 문제 개선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개입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높이고 관계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 심리적 변인으로서의 배려심과 자아탄력성 향상에 주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환경적 위험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이탈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의 가정환경 요인인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정도가 높아지며,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배려심과 학교적응을 높이고, 배려심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력이 향상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 때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을 떨어뜨려 청소년의 배려심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시기에 타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많은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지나치게 수동적인 혹은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공격적 혹은 순응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이게 된다. 그 결과, 학교생활은 점차 불쾌한 경험이 되면서 학교생활에서 유리되고 학습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A-H. Maha, 2013).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된 연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양육태도의 긍정적 변화만으로는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한계가 있으며,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관계형성의 경험을 통해 자아탄력성이나 배려심과 같은 청소년들의 개인의 심리적인 변인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배려심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이나 부적응 문제들을 적응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들의 배려심과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들의 배려심과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들 관계 안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상호작용을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천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적응과 관련한 실천적 함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가정과 학교의 상호작용을 통한 보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과 학업과 진로뿐만 아니라 비행, 이탈행동 등에 직·간접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시스템이 학교 내에 구축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학교폭력, 따돌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학부모들의 처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전문상담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학부모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화 및 상담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

둘째,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아탄력성은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함과 동시에 부정적 생활 사건들에 잘 대처함으로써 학교적응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 내에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과 더불어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학업성취도와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규 수업 과정의 일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교육은 인간적인 덕성을 갖춘 인격체를 길러내는 것이 목적으로 인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배려와 인격적 수양과 같은 지속적인 학습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장면에 꾸준히 학습하고 관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교장면에서 학생들이 학업적 성취로 인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관심을 또래와 다른 타인과의 관계로 확장할 수 있도록 배려의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의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연구 결과,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이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적응기제로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실제 학교장면에서 학생들의 대인관계와 더불어 인격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변인들을 평가하고 청소년의 적응적인 보호요인을 찾아 긍정적인 강화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과 이탈을 예방하고 인격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과 이탈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서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

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위험요인이나 학교적응에 대한 적응기제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적응 예방하기 위한 보호요인으로서의 자아탄력성뿐만 아니라 배려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욱 다양해지는 청소년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REFERENCES

- Ahn, T-Y., & Roh, Y-C. (2013). The mediating effect of a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defending or standing by behavior in upper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3), 1663-1678.
- Baek, G. M. (2008). *The effec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self-efficacy on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Baek, H-J. (2007). The effects of self control, self reliance and attachment to teacher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2), 357-37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 - 61.
- Bornstein, M., & Cote, L. (2004). Mothers' parenting cognitions in cultures of origin, acculturating cultures, and cultures of destination. *Child Development, 75*(1), 35-48.
- Cho, Y-R. (2006). *(The) Relationship among big five personality factor,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J. E., & Shin, Y. J. (2003). A study on adolescents' level of school adjustment by their perceived relationship with parents, peer and teachers.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2), 199-210.
- Choi, K. R. (2004). The relations between the family function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 focused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gi-do,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5*(2), 123-135.
- Chung, M. Y., & Chung, O. B. (2001). A study care-oriented morality and justice-oriented morality in high school stud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10), 187-204.
- Chung, O. B. (2004). *Theories of Life Span development*. Seoul: Hakjisa.
- Chung, O. B., & Kwag, K. H. (2003). Care and justice oriented morality: relationship to gender, sex role identity and ag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1), 1-20.
- Chung, Y. K. (2000). The ethic of care & moral education of Nel Noddings(KD 2000-27-01-01).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Dictionary of Psychology. (2014). Retrieved from <http://www.koreanpsychology.or.kr>.
- Fiedlander, L. J., Reid, G. L., Shupak, N., & R. Cribbie, R. (2007).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tress as predictors of adjustment to university among first-year undergraduat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8*(3), 259- 274.
- Gilligan, C. (1993).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oh, I. J.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moral judgment, car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 Korea.
- Goo, J. E. (2000). *Relationships between self-resilience, positive emotion,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s' adjustment in family life-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 Gyeong, S. I. (2006). *(An) Analysis of relations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 Korea.
- Gwon, J. E. (2003). *(The) relation of ego-resilience,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problem-solv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Seoul, Korea.
- Han, M. R. (1997). *The child's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and school mal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Huh, M. Y. (2004).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2), 170-189.
- Hwang, Y-J., & Kim, K-K. (2014).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ego resiliency among junior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4(1), 205-229.
- Jo, E. J. (2008). The mediation effects of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6), 299-322.
- Jung, E. J. (2000). *Th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academic results and mental hygiene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 Korea.
- Jung, T. S.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chool adaptability of students in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and the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C. S.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Korea.
- Kang, S. H. (2010).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attachment,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o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58(3), 1-29.
- Kim, B. N. (2010). The influence of family income on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between parent-children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Journal of Far East Social Welfare*, 6, 7-27.
- Kim, H. Y. (2007). *An effect of marital conflict and parent nursing attitudes perceived by children on their lonel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Ha, M-S., & Kim, B-H. (2011). The clustering and big five personality in discriminating the groups by the level of school-related adjustment. *Studies on Korean Youth*, 22(3), 149-174.
- Kim, J-H., & Chung, L-J. (2010). The effects of poverty on school mal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mediated by parental monitoring and types of internet us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1(3), 29-56.
- Kim, O. S., Oh, Y. J., & Choi, M. G. (2005). Strengths, ego-resilience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3), 761-777.
- Kim, S. J., Lee, C. J., & Choi, B. S. (2004).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increase of school resilience for development of adolescent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 model. *Journal of Korea Academic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3(3), 291-303.
- Kim, S-Y. (2005). *Middle school students' sense of consideration: factor structure and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 Kim, Y. H. (2002). A study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in poor families - with the mediating role of maternal involvement.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3(1), 1-14.
- Kim, Y. H., Choe, B. Y., & Lee, I. H. (2013). Analysis on the life condition and needs of school dropout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5(4), 1-28.
- Kim, Y. H., & Seong, G-J. (2014). The influence of the stresses and ego resilience on the school adap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2, 103-126.
- Kim, Y. M., & Lim, Y. S. (2013).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al over-involvement, ego-resilience, school adjustment,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5(2), 343-366.
- Kim, Y. R., & Huh, N. J. (2003).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and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 5-24.
- Kim, Y. R., & Kim, T. E. (2001).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non-academic self-concept, school attitudes and school adjustment. *Education Research Journal*, 18, 3-46.
- Kown, J. H. (2006). *A study on explanatory variables of ego resilience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wak, S. (2005).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 sis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6(1), 1-26.
- Kwon, H. W. (2004). *(A) Study on the democratic citize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won, Y. J., & Kim, Y. H. (2011). Effects of family functioning & adolescents' self-regulation on online game overflow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6), 99-121.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7). Classroom peer acceptance, friendship, and victimization: Distinct, relationship systems that contribute uniquely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8(6), 1181-1197.
- Lee, B. S. (2002). Discussion on the justification of 'ethic of caring'. *Philosophy of Education*, 21, 133-151.
- Lee, H. S. (2003). Study of difference from perception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learning achievement according to parent's attitude of upbringing.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2(2), 137-150.
- Lee, K. Y., Choi, S. Y., Jang, S. H., & Shin, S. C. (2010). Recogni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parents about multicultural educatio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9(1), 115-132.
- Lee, M. H. (2007). Variables associated with school-related adjustment of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ion*, 32(2), 1-22.
- Lee, N. H. (1997). A study of moral orientation examined in 'caring' as feministic ethics.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12(2), 151-178.
- Lee, S. H., & Choi, H. (2007).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parental involvement in education, their ego-resiliency, test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2), 321-337.
- Lee, W. J., & Kim, Y. H. (2012). Adolescents personalities,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Human Ecology*, 16(1), 69-83.
- Lee, Y. H. (2008). *Teenager's personality characteristic and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al attitude and self adapt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J. (2007). *The influence of parent-adolescence's communication, self-efficacy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S. (2004). *(A) Study on school stress, self-resilience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With female students at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im, J. M. (2002). *(The) Effects of cooperative learning on grow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oral virtu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ipman, M. (2003). *Thinking in education* (2nd ed.).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ha, A-H. (2013). Temperament,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existing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Educational Review*, 65(2), 177-205.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 205-220.
- Mayeroff, M. (1971). *On Caring*. N.Y: Harper & Row.
- Min, B. S. (1991). *The Effect of the Adolescents' School Life Adaptation and Self-concept on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Ministry of Education. (2014). <http://www.moe.go.kr>
- Moon, E. S. (2005).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in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4), 1087-1108.
- Noddings, N. (1992). *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s* (2nd ed.). N.Y: University of Columbia Press.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 *Support plan research for children and youths I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Huh, M. Y. (2006).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Oh, S-G. (2006). *The relationship of self-concept to school adjustment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won, Korea.
- Park, J., & Moon, J-W. (2006). The causal relationship of adolescent's family conflicts,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as health protection behavior.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 Promotion*, 23(2), 91-107.
- Park, S., & Yoon, C. (2013). The effects of personal and family variable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6th and 9th grade Korean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4(3), 147-169.
- Park, S. J., & Shim, H. W. (2012).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al attitude, ego-resiliency self-regulated learning structurally on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in pover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2), 113-135.
- Richman, J. M., Bowen, G. L., & Woolley, M. E. (2004). School failure: An ecological-interactional-development Perspective. In M. W. Fraser (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2nd ed.).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Press.
- Rubin, K., & Chung, O. (2006). *Parenting beliefs,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 Cross-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Psychology Press.
- Seo, Y. S. (2010). Testing mediator and moder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distinction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2(4), 1147-1168.
- Söchting, I., Skoe, E. E., & Marcia, J. E. (1994). Care-oriented moral reasoning and prosocial behavior: A question of gender or sex role orientation. *Sex Roles*, 31, 131-147.
- Standard Korean Dictionary. (2008).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Retrieved from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Statistics Korea. (2010). *Problems the youth are concerns and counseling*.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
- Sung, S. J. (2010). *Analysis of the causal relationships of the factor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buk National University, Chongbuk, Korea.
- Sung, Y. H., & Shin, K. S. (2001).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s and the tend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s in the children by family cohesion & adaptabilit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6(2), 45-63.
- Tae, W. J. (2014, June 19). Youth leaving school, educational failure perspective to look up. *The Kukminilbo*. Retrieved from <http://news.kmib.co.kr>
- Yang, M. J., Kim, E. Y., & Lee, S. H. (2008). Development of a care enhancement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n elementary students.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38, 1-96.
- Yune, S., Ju, J., & Lee, E. (2013).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systems, class cohesiveness, and school adaptation in adolescence.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1(2), 185-207.

Received: January 15, 2015

Revised: April 11, 2015

Accepted: April 13, 2015